

#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아이디어 맨' 전병조 급부상

〈전 KB증권 사장〉

盧정부 시절 비서실행정관 지내 관료 출신에도 IB전문가 인정받아 추진·영업력 강해 DCM 1위 이끌어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차기 수출입은행장 후보로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이 급부상했다.

전병조 전 사장은 기존에 수출입은행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마찬가지로 행시 29회에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사장이 '국제 금융통' 관료로서의 행보를 이어간 것과 달리 전병조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가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업계에서 최고경영

진행 중이다.

전병조 전 사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국제금융과 등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빠른 승진으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관 겸 국제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대통령비서실에 있을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나 이광재 전 의원 등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조 전 사장은 2008년 9월에 NH

투자증권 투자금융(IB) 부문 전무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생활을 떠났다. 2012년 7월에는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IB부문 전무, 2013년 8월 KB투자증권 부사장을 역임한 뒤 2015년 1월 KB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 이후에도 각자 대표 체제로 KB증권의 IB 부문을 이끌어 오다가 지난해 말 사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병조 전 사장은 당시 KB투자증권이 중소형사였음에도 채권발행시장(DCM) 1위를 이끌 정도로 추진력과 영업력이 강했다"며 "관료 출신임에도 업계에서 IB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업계평판은 긍정적이지만 수출입은행 내부에서도 저항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기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KIC 사장과 비교하면 국제금융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국제금융통이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됐다. 최희남 KIC 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세계은행(WB) 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KIC로 이동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돼지고기 경매가 40% 급등... 소매가도 소폭 상승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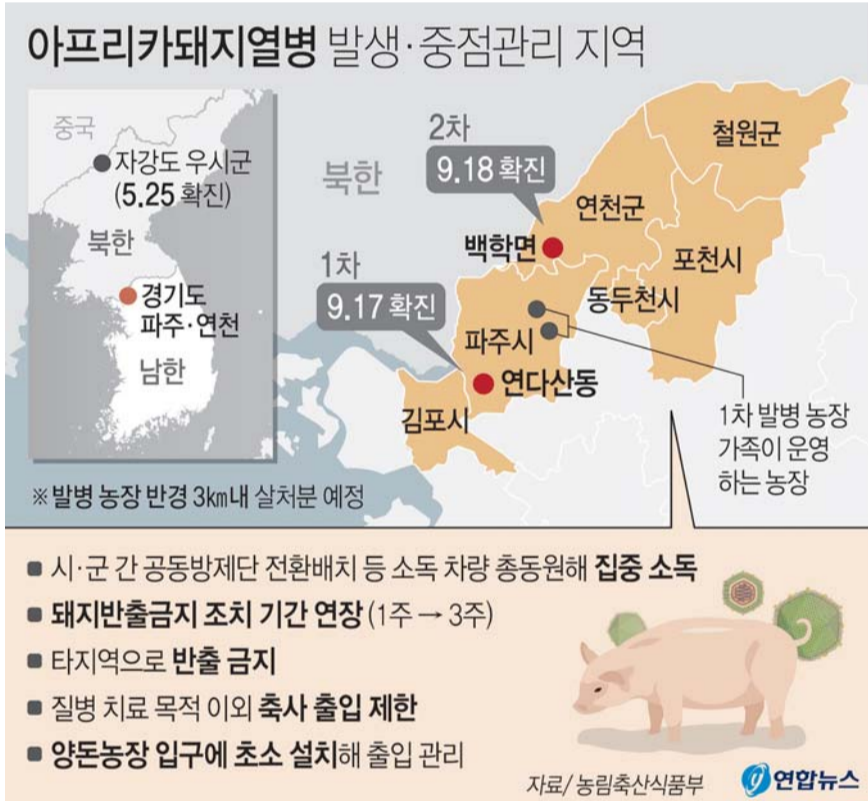
도매상 거쳐 1~2일 후 소매상 유통 정부 "수급에 영향 미칠 정도 아냐"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전염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국의 10% 미만이며, 현재 돼지고기 공급량이 충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거래 기준 돼지고기 전국 평균 경매가는 kg 당 6030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16일(4316원)보다 약 39.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가격은 소폭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6일 100g당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지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올랐다. 이는 한 달 전 가격인 1884원에 비교하면 8.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192원) 보다는 약 6.8% 저렴한 가격이다. aT 측은



최근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대체로 약세였지만,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소매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 공판장 경매를 거친 돼지고기는 중간 도매상을 거쳐 1~2일 후 정육점과 식당 등으로 유통된다. 이에 도매 상승분이 소비자가로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약 1주일 치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장 소비

자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약 1주일치 돼지고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후 수입 돈육 등 대체 상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체에는 무관하다는 사실로 아직까지는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이 적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못한다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돼지고기값이 1년 전보다 47% 가까이 폭등

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으로 돼지고기 값이 요동칠 것이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348만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공급량이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 당시 돼지고기값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외식업계와 식품제조업계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돼지고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 돼지고기 가격을 일반적인 대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전국 6300개 돼지 사육 농가에서 1200만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파주와 연천 등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서는 약 1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 돼지사육 두수는 평년보다 13%가량 많고 재고도 쌓여 있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어제 가격이 오른 것은 수급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 '1200원 환율 효과' 수출입 물가 동반상승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물가도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환율 상승효과를 제거하면 수출입 물가는 여전히 하락세였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01.90(2015=100)으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 하락했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는 6월(-2.2%), 7월(-0.3%) 연속으로 하락하다 8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승폭은 지난해 7월(2.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출물가가 반등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평균 달러당 1175.3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209원으로 2.9%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가 1.1% 상승했다. D램(2.9%), 플래시 메모리(2.9%), 시스템 반도체(2.9%) 등 반도체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다. 환율 영향을 제거해도 0.1% (계약통화기준) 상승했다. D램 수출물가는 환율 효과를 빼면 전월 대비 보합세였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2%, 수입물가는 1.8%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은성수 "핀테크 혁신펀드 3000억... 과감한 정책 펼칠 것"

### 금융위원장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내년3월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운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첫 행보로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장세도에 오른 기업의 성공에는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글로벌 시장확대가 있었다"며 "핀테크 혁신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42건에서 100건으로 늘린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

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 혁신과 핀테크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샌드박스제도로 불록체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적 기술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김홍일 디캠프 센터장(가운데)이 스타트업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